

## 13년의 연구성파로 우뚝 선 '新 한국통사'

전수련 - 술출판사 편집부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이하 '뿌리깊은 한국사')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 현직 대학교수들이 10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친 원고들로 편집된 책이다. 까다로운 편집 및 제작에 소요된 시간이 약 3년이다. 1990년에 필자들이 새로운 한국사를 쓰자는 데에 의기투합, 이후 수많은 사료史料를 취사선택해 번역하고, 회합, 토론, 집필, 수정을 거듭해 온 10년을 더한다면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는 기간은 모두 13년여에 이르는 셈이다.

필자들은 모두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40~50대 초반의 중견학자들로서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결성된 역사교육연구회의 멤버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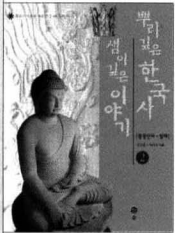
지난 5,6년 전부터 역사학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차원의 역사관련 서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부응하는 역사서들을 기획하던 술출판사가 '뿌리깊은 한국사'가 상당 부분 집필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1999년경. 출판사에선 필자들의 원고를 검토한 후 이 역사서가 기존의 역사서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주장, 그리고 역사기술의 새로움과 객관성에의 지향 등등 역사서로서의 주요한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고대사에서 왕왕 보이던 고구려 땅과 역사에 대한 과잉된 혹은 왜곡된 국수주의적 사관 혹은 기존의 해묵은 식민주의적 관점, 서구 편향의 사관 등에 대한 반성이었다. 그리고 주요 사료를 꼼꼼히 번역하고 챙겨주고 냉철히 해석을 가하는 역사기술 방식, 시대별 쟁점을 가려 뽑아 집중적으로 해설하고 해석하는 역사기술 방식의 생산적인 특성, 자상한 참고문헌 목록 등등 실로 기존의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익한 새로움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는 물론 필자들의 오랜 학문적 고민과 공부, 토론 끝에 얻은 산물이었다.

출판사로서는 이러한 새롭고도 귀중한 한국사 원고를 어떻게 편집하느냐,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원고의 양도 방대하여 전 7권 모두 1만 7천여 장에 이르렀는데, 더 큰 문제는 독특하게도 원고의 구성이 해설 부분, 사료 부분, 주석 부분, 참고문헌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존의 어느 역사서처럼 정형화되고 일관된 편집과 레이아웃이 원고 자체에서부터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몇 차례 편집회의를 거치면서 《뿌리깊은 한국사》의 역사서로서의 새로운 의미와 독특한 역사기술 방식을 심분 살리는 방향으로 편집의 기본원칙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기별로 총 7권으로 분권하고 판형을 키우며, 특히



제1권 고조선-삼국 서의식(서울산업대 교수) 강봉룡(목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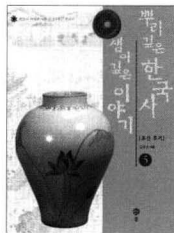
제2권 통일신라 발해 강봉룡(목포대 교수) 서의식(서울산업대 교수)



제3권 고려 이병희(한국교원대 교수)



제4권 조선 전기 김 돈(서울산업대 교수)



제5권 조선 후기 김중수(군산대 교수)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 7인 지음 | 솔출판사 | 각권 약 400쪽 | 각권 값 약 25,000원



제6권 근대 김태웅(군산대 교수)



제7권 현대 류승렬(강원대 교수)

사료(자료샘) 부분에 신경을 쓰고 본문도 올컬러로 제작하며, 각 장 말미에 붙인 참고문헌과 책 뒤의 색인 등을 적절하면서도 비중 있게 수록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는 물론 이 역사책 이전에는 없던, 특별한 원고구성에 걸맞는 특별한 편집체제가 필요하기도 하였지만 독자들의 편리한 독서를 유도하려는 편집자의 배려에서 비롯된 원칙이었다.

이 원고의 특징은 한국사 원고로서는 전에 없던 풍부한 사료를 제시하는 새로움과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는 기존 역사서와 다른 객관성 지향(이 책의 특성 중의 하나인 시대별 쟁점과 논점으로 기술했다는 사실 자체가 논쟁적 객관성을 지향하는 냉철한 역사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을 역사적 상상과 구성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높은 가치, 역사책 원고로서는 까다로운 구성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가 추구해야 하는 독자들의 수월한 독서를 위한 편집체제가 필수적이어서 풍부한 도면과 사진 등 이미지들을 적극 수용하고, 판형을 키워 편집의 여유를 확보하려 했다. <해설> <자료샘> 등의 주석을 좀더 자상하게 달아 일반 독자들의 편리를 염두에 두었고, 색인 작업에 치중하였다.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신문사를 뒤져 구한 수록사진이 모두 1천 컷이 넘으며 직접 그린 지도, 상상도, 조감도 등 도표 도면만도 2백 컷에 가깝다. 맥킨토시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3천여 쪽에 이르는 각각의 페이지들을 쪽수에 신경 써가며 만들었기에, 교정·교열자와의 갈등, 충돌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로 막대한 정성을 들여 완성하게 되었다.

오늘 한국 출판계에서 한국사 관련 책들이 숫적으로 점차 늘고 있다. 많은 경우 한국사 학계의 보수적 학맥 선상에서, 다시 말해 보수적인 역사관과 보수적인 역사기술 방식에 입각한 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시대별 쟁점과 논점으로 쓴 한국통사'인 《뿌리깊은 한국사》는 오늘날 한국사학의 수준과 성과들을 대변하는 젊은 현직 교수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보수적인 국사학풍에 대한 깊고도 내실 있는 반성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주의 사관을 표방하고 있는 최근 출간된 민족주의적 혹은 국수주의적 역사 교과서류가 보여주는 사료의 한계 및 객관적 역사의식의 결여 등등 한국사학,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및 관련 도서에 대한 '딴짓은 반성기제' 로서 널리, 그리고 깊이 있게 활용되길 바란다. **한민**